

— 정책 연구 —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최미영¹ · 정재심² · 권정순³ · 김경숙⁴ · 이선희⁵ · 서현주⁶ · 정영선³ · 정인숙⁷ · 이현희⁸ · 김은현⁹ · 조용애¹⁰ · 김신미¹¹ · 은영¹²

¹한국보건 의료연구원 보건 의료 연구본부, ²울산대학교 간호대학, ³서울아산병원 간호부, ⁴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 ⁵가천대학교 간호대학, ⁶조선대학교 간호학과, ⁷부산대학교 간호대학, ⁸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 ⁹세브란스병원 간호국, ¹⁰중앙대학교 간호대학, ¹¹창원대학교 간호학과, ¹²경상대학교 간호대학

Current Status of Teaching Evidence-based Nursing to Nursing Students and Educational Strategies for Dissemination

Choi, Miyoung¹ · Jeong, Jae Sim² · Kwon, Jeong Soon³ · Kim, Kyeng Sug⁴ · Lee, Seon Heui⁵ · Seo, Hyun Ju⁶ · Jeong, Young Sun³ · Jeong, Ihn Sook⁷ · Lee, Hyun Hee⁸ · Kim, Eun Hyeon⁹ · Cho, Young Ae¹⁰ · Kim, Shin Mi¹¹ · Eun, Young¹²

¹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Division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Research; ²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Ulsan; ³Department of Nursing, Asan Medical Center, Seoul; ⁴Nursing Department,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⁵Department of Nursing, Gacheon University, Seongnam; ⁶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Gwangju; ⁷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⁸Nursing Depart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⁹Division of Nursing, Severance Hospital, Seoul; ¹⁰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¹¹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¹²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nursing education to nursing students and strategies for dissemination.

Methods: For investigation of current education status of evidence-based nursing, a searching for websites of 204 nursing colleges in Korea. And a focus-group interview was performed. Ten participants were faculties working at college of nursing.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Nineteen (9.3%) colleges were running evidence-based nursing (EBN) course in the undergraduate course and 29 colleges opened EBN course in the graduate school. Five topics regarding experience on teaching EBN were as follows, 1) there are need to teaching EBN in nursing colleges 2) EBN education leads to improvement in professional perception and research, but low level of feed-back also indicated. 3) Barriers were lack of faculty ability, difficulty in course management, limitation of resource and gaps in practice. 4) Facilitators were changes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teaching faculty and developing teaching program. 5) Educational strategies for dissemination were changes on external evaluation and strengthening of academic society activities. **Conclusion:** EBN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re effective in improving critical thinking and nursing research. Developing strategies for dissemination of EBN to nursing students are needed.

Key words: Students, Nursing; Evidence-based nursing; Education, Nursing, Graduate; Education, Nursing, Baccalaureat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근거기반간호는 간호사가 실무에서 현재까지 활용가능한 최상

의 과학적 근거를 간호사의 임상적 전문성, 대상자의 선호도와 가치, 활용가능한 자원과 통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최상의 간호실무를 제공하는 것이다.¹⁾ 국내 임상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근거기반간호 실무(evidence-based practice, EBP)가 도입되어 조직적인 교육과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2016년 근거기반간호학회

주요어: 간호학생, 근거기반간호, 간호대 학부 교육, 간호대 대학원 교육

*이 연구는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의 2017년 정책연구 지원비로 수행되었음.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2017 Policy Research project of Korean Society of Evidence-based Nursing.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ung Eun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Tel: +82-55-772-8233 Fax: +82-55-772-8222 E-mail: yyoeun@gnu.ac.kr

투고일: 2017년 11월 27일 심사완료일: 2017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6일

에서 주도한 정책연구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0개 중 38%에서 근거기반간호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었고, 간호전문성 향상과 간호의 질향상이 가장 많은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²⁾ 임상현장에서는 이미 근거기반간호실무의 적용을 통해 간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의 비판적 사고와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간호학생들도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근거기반간호의 개념과 필요성, 방법을 교육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외에서는 2005년 이후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추진되었다.³⁻⁵⁾ 학부과정에서는 PICO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요소를 중심으로 한 핵심질문의 개발과 문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교과목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제안되고 있으며, 간호학생들이 이러한 근거기반간호 교과과정을 이수했을 때 근거기반간호실무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⁶⁾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으로 12개의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이다.⁷⁾ 간호대학에서는 대학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졸업생의 역량을 보장하는 대학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근거기반간호실무 교육, 지침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간호대학이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거기반간호 교육현황이나 교육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근거기반간호 교육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교과목 운영성과와 운영의 장애 및 촉진 요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근거기반간호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이를 간호실무로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현재 국내 간호대학에서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교과목 운영의 필요성, 촉진 및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 2)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필요성과 성과를 확인한다.

- 3)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확인한다.

- 4)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한 연구이다.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현황은 서술적으로 조사한 양적 연구이고,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필요성과 성과,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은 대상자와의 면담자료를 질적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해 시행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1) 양적 연구(서술적 조사연구)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국내 간호대학 204개이며, 이는 2017년 대한간호협회 공식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된 국내 간호대학교 목록을 근거로 한다.

2) 질적 연구(질적내용분석)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필요성과 성과,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대상은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국내 간호대학의 교수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의 추천을 통해 눈덩이식 표집으로 모집하였고, 10명 모두 현재 간호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로 성별, 연령, 근무기간이나 경력에 제한은 두지 않았다. 연구목적 중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상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교과목을 운영 여부에 따라 대학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어, 2017년 현재 기준으로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운영하지 않는 그룹(그룹1)과 운영하는 그룹(그룹2)으로 나누어 모집하였다.

초점집담면담참여자 10명은 모두 여성이고, 연령대는 41세에서 50세가 가장 많았으며(60.0%), 평균연령은 46.8±7.7세였다. 조교수(40.0%), 부교수(30.0%)가 가장 많고 초빙교수도 2명(20.0%)이 참여했다. 학생수는 300명 이하가 가장 많았고(50.0%), 평균 379±208.7명이

었다. 총경력은 10년 이하가 40.0%로 가장 많고 평균 18.1 ± 11.0 년이었으며, 현재 근무지의 경력은 3년 이하가 60.0%로 가장 많고, 평균 재직기간은 5.5 ± 5.7 년이였다.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강의해 본 경험은 6명이 있다고 응답했고(60.0%), 근거기반간호 워크숍이나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험은 3회 이상이 50.0%, 2회 이하가 30.0%,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2명(20.0%)이었다. 현재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운영 중인 곳은 4군데(40.0%)였다(Table 1).

3. 자료수집

1) 양적 연구(서술적 조사연구)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4개 간호대학 홈페이지 공개정보 및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cus Group Participants (N=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 $\pm$ SD
Gender	Female	10(100.0)
Age(year)		46.8 $\pm$ 7.7
	≤ 40	2 (20.0)
	41~50	6 (60.0)
	51~60	1 (10.0)
	≥ 61	1 (10.0)
Position	Professor	1 (10.0)
	Associate professor	2 (20.0)
	Assistant professor	3 (30.0)
	Adjunct professor	4 (40.0)
Number of students		379.0 $\pm$ 208.7
	≤ 300	5 (50.0)
	301~350	2 (20.0)
	351~400	2 (20.0)
	≥ 401	1 (10.0)
Total of experience(year)		18.1 $\pm$ 11.0
	≤ 10	4 (40.0)
	11~20	2 (20.0)
	21~30	2 (20.0)
	≥ 31	2 (20.0)
Experience of current position		5.5 $\pm$ 5.7
	≤ 3	6 (60.0)
	4~9	3 (30.0)
	10~15	-
	16~21	-
	≥ 22	1 (10.0)
Experience of evidence-based nursing workshop or conference	Yes (Over 3)	5 (50.0)
	Yes (Under 2)	3 (30.0)
	No	2 (20.0)
Experience of teaching evidence-based nursing class	Yes	6 (60.0)
	No	4 (40.0)
Currently teaching evidence-based nursing class	Yes	4 (40.0)
	No	6 (60.0)

를 기반으로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현황에 대해 구조화된 조사서식을 마련하였다. 조사서식에 대해서는 2명의 현직 간호대학 교수의 사전 검토 및 자문을 받았다. 2명의 조사원이 직접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과목 운영현황 정보를 조사하고 자료를 입력하였으며, 1명의 다른 조사원이 입력된 자료를 재검토하고 확인하였다. 조사는 2017년 9월 7일부터 2주간 시행되었고, 수집된 자료의 검토 및 확인에 1주가 추가 소요되었다.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개설 여부 및 수강대상
- 2)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이수학점 및 전공필수/선택과목 여부
- 3) 대학의 일반적 특성(소재 지역, 설립형태 등)

2) 질적 연구(질적내용분석)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필요성과 성과,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하여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학의 교수를 대상으로 현재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의 운영 여부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룹당 1회씩 초점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별도의 면담과 녹음에 방해되지 않는 회의실을 확보하여 진행하였고, 면담자(moderator)는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고, 간호대학생 또는 간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근거기반간호 교육 또는 강의의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근거기반간호 방법론 전문가1인이 각각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연구과정을 설명하고,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의 발표과정에서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 절차와 자발적인 연구참여와 연구과정 중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구두로 연구참여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면담을 시작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사전동의를 얻은 후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을 시작하였으며, 초점집단면담 중 임의로 중지할 수 있음도 고지하였으나 면담중단을 요구한 참여자대상자는 없었다.

면담은 ‘현재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개설하게 된 이유 또는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었는가?’, ‘현재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각각 무엇인가?’, ‘근거기반간호 교육의 활성화(확산)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초점집단면담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초점집단면담 시간은 각 그룹당 약 1시간 30분씩 이루어졌으며, 녹음된 내용은 필사하여 면담노트를 작성하였다.

4. 자료분석

1) 양적 연구(서술적 조사연구)

사전 연구진 검토를 통해 확정된 구조화된 서식에 의해 조사원이 코딩한 자료는 2명의 연구자가 교차점검을 완료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Microsoft Excel 파일에 입력한 후 STATA version 13.0 (IBM, United States)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내용을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질적 연구(질적내용분석)

초점집단면담 녹취를 통해 수집된 녹음 자료는 필사한 후 질적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 연구 수행의 경험을 가진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고, 언어적 자료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귀납적인 접근법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진술문 확보, 개방 코딩, 범주화, 주제 도출, 추상화의 과정을 실시하였다.⁹⁾

우선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있는 진술문을 찾아냈다. 찾아낸 진술문들은 다시 일련의 패턴을 찾아 개방 코딩을 시행했다. 본 연구에서 초기 개방 코딩은 94개였다.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경험과 촉진 및 장애요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추출된 의미 단위/개념을 범주화하여 21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다시 14개의 중위범주와 5개의 상위범주로 집단화하였다.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credibility), 적용가능성(transferability), 확실성(dependability),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고려해야 한다.¹⁰⁾ 본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술 중에 끼어들지 않고 정정 후 참여자의 진술이 끝날 때 요약하여 말하면서 참여자의 진술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자료분석에서는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도록 노력하면서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다른 연구자와의 회의를 통해 추출된 개념과 범주를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면담 시 진술 내용을 있는 그대로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다른 맥락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개념을 추출하고 범주를 발견하는 모든 분석 과정 동안 서로 의견 교환을 하였고, 이견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 자료의 재검토를 통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연구참여 자료부터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에 대한 연구진의 해석을 독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본문에 참여자의 진술을 인용함으로써 확인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1.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현황

국내 간호대학 204개의 목록과 기본정보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각 대학교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한하여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개설현황을 확인하였다(Table 2).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학부의 경우는 근거기반간호로 단독 개설한 대학이 19개(9.3%)였고 개설하지 않은 대학은 175개(85.3%)였으며, 10개(4.9%) 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구득이 어려웠다. 근거기반간호 교과목과 관련하여 간호연구 교과목이 학부에 개설된 경우를 추가 조사했으며, 간호연구 개설의 경우는 167개 대학으로 전체 81.9%에 이르렀다. 홈페이지에서 교과목 개설현황 열람 권한이 부여되지 않거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는 8건(3.9%)이었다. 대학원의 경우는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단독 개설한 학교가 29개(14.2%), 개설하지 않은 학교는 30개(14.7%)였는데, 대학원이 없는 학교로 파악된 곳은 132개(64.7%)이다. 학부와 대학원 모두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이 개설된 대학은 3개(1.5%)였으며 대학원만 개설된 경우는 26개(12.7%), 학부만 개설된 경우는 5개(2.5%), 둘다 개설 안된 대학은 170개(83.8%)에 이르렀다. 조사 대상인 204개 대학은 국공립 23개 대학(11.3%), 사립이 181개(88.7%)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4년제 학제를 운영 중이다(95.6%). 지역적으로는 중북부 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 55개(27.0%), 남서부 지역(전북, 전남, 제주, 광주) 43개(21.1%), 중서부(대전, 충남, 충북) 지역 39개(19.1%), 남동부(경남, 울산, 부산) 지역 35개(17.2%), 중동부 지역(경북, 대구) 32개(15.7%) 순으로 분포하였다.

교과목이 개설된 경우, 상세 운영현황은 Table 3와 같다. 학부에서 개설한 19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개설유형 중 전공필수는 단 1개 학교였으며, 전공선택(84.2%)이거나 전공일반(10.5%)이 대부분이다. 개설학년은 4학년이 12개(63.2%)로 가장 많았고, 3학년은 5개(26.3%) 대학, 2학년에 개설한 대학은 2곳(10.5%)이었다. 학점은 2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14개(73.7%)로 가장 많았으며, 1학점이 5개(26.3%) 학교였다. 대학은 사립이 17개(89.5%), 국립이 2개(10.5%)였다. 대학소재지에 따라서는 중북부 지역이 가장 많았고(31.6%), 중동부 지역, 남서부 지역, 남동부 지역은 각 4개(21.1%) 학교로 동일하게 분포하였고, 중서부 지역에서 1개(5.3%) 학교로 확인되었다.

간호연구가 개설된 학교는 167개로 전체의 73.1%(122개) 학교가 전공필수로 운영하고 있고, 전공선택은 29개 학교(17.4%)였다.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16개(9.6%) 대학이었다. 개설학년은 4학년(46.7%)과 3학년(38.3%)에 주로 분포하였다.

대학원의 경우는 29개 학교가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개설 중이

Table 2. Characteristics of Korean Nursing Colleges and Educational Status of Evidence-based Nursing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b-categories	n (%)
Evidence-based nursing related course	Undergraduate course	Evidence-based nursing	Open 19 (9.3)
			Not open 175 (85.8)
			Unidentified 10 (4.9)
		Graduate	Open 167 (81.9)
			Not open 29 (14.2)
			Unidentified 8 (3.9)
	Course	Evidence-based nursing	Open 29 (14.2)
	Undergraduate-graduate		Not open 30 (14.7)
			No graduate school 132 (64.7)
			Unidentified 13 (6.4)
Characteristics of nursing colleges	Establishment	Type	National/public 23 (11.3)
			Private 181 (88.7)
	Academic	Course type	3 year course 9 (4.4)
			4 year course 195 (95.6)
	Location	Metropolitan city, province	Central-north area (Seoul/Incheon/Gyeonggi/Gangwon) 55 (27.0)
			Mid-west area (Daejeon/Chungnam/Chungbuk) 39 (19.1)
			Mid-east area (Gyeongbuk/Daegu) 32 (15.7)
			South-west area (Jeonbuk/Jeonnam/Jeju/Gangju) 43 (21.1)
			South-east area (Gyeongnam/Ulsan/Busan) 35 (17.2)

었고, 석박공통으로는 16개(55.2%), 석사과정은 5개(17.2%), 박사과정에서는 4개(13.8%)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홈페이지 정보구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4개(13.8%)였다. 학점은 3학점이 23개(79.3%)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나, 나머지 대학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20.7%). 설립형태는 사립이 21개(72.4%)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구분으로는 중북부 지역이 9개(31.0%) 학교로 가장 많고, 중서부 지역 7개(24.1%), 남서부 지역 5개(17.2%), 중동부와 남동부 지역이 각 4개(13.8%)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2.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필요성과 성과

초점집단면담조사에 참여자들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개설 및 운영경험'이라는 연구질문에 따라 도출된 5가지 최종적인 범주와 내용의 개요는 Table 4와 같다. 이중 교과목 운영의 필요성과 성과와 관련하여서는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개설', '근거기반간호 운영 성과'라는 2가지 상위범주(주제)가 도출되었고,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개설'에서는 '도입배경'과 '개설과정 및 방법'이라는 2개의 중위범주, '근거기반간호 운영 성과'에서는 '긍정적인 성과'와 '부정적인 성과' 2개의 중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개설

(1) 도입배경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의 도입 배경으로 최신 간호연구동향 반영, 필요성 인식이 중요한 범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최신 국의 간호연구의 동향을 반영하여 근거기반간호의 개념과 과정을 소개하고자 하였고, 교수들의 해당 교과목의 필요성 인식과 임상과 실습에서의 기대효과 역시 도입 배경에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4학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최신의 개념이나 과목들을 기회를 주자.”(그룹2-참여자1)

“미국 간호연구 개론 개정판에서 근거기반간호실무가 다 소개되고 있어서, 대학원에서 개설 하는데는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그룹2-참여자2)

“옛날에 임상에서 도제식으로 배웠는데 근거기반간호를 학생들이 알고 가면 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룹1-참여자4)

(2) 개설과정 및 방법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의 도입 대상에 대해서는 대학원부터 개설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고, 학부는 학점이나 과목 부담 등의 이유로 단독개설이 어려워서 간호연구 혹은 조사연구방법론 과목에 근거기반간호 내용을 일부 포함해서 도입했는데, 교과

Table 3. Characteristics of Korean Nursing Colleges that Teaching Evidence-based Nursing Course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b-categories	n (%)
Undergraduate course	Evidence-based nursing (N=19)	Course type	Mandatory course	1 (5.3)
			Elective course	16 (84.2)
			General course	2 (10.5)
		Grade	2nd year	2 (10.5)
			3rd year	5 (26.3)
			4th year	12 (63.2)
		Course credit	1 credit	5 (26.3)
			2 credit	14 (73.7)
		Establishment type	National/public	2 (10.5)
			Private	17 (89.5)
		Locations	Central-north area (Seoul/Incheon/Gyeonggi/Gangwon)	6 (31.6)
			Mid-west area (Daejeon/Chungnam/Chungbuk)	1 (5.3)
			Mid-east area (Gyeongbuk/Daegu)	4 (21.1)
			South-west area (Jeonbuk/Jeonnam/Jeju/Gangju)	4 (21.1)
			South-east area (Gyeongnam/Ulsan/Busan)	4 (21.1)
	Nursing research (N=167)	Course type	Mandatory course	122 (73.1)
			Elective course	29 (17.4)
			Unidentified	16 (9.6)
		Grade	1st year	1 (0.6)
			2nd year	10 (6.0)
			3rd year	64 (38.3)
			4th year	78 (46.7)
			other (2 years)	4 (2.4)
			Unidentified	10 (6.0)
Graduate course	nursing (N=29) Evidence-based nursing (N=29)	Degree course	Master-doctorate common course	16 (55.2)
			Master	5 (17.2)
			Doctorate	4 (13.8)
			Unidentified	4 (13.8)
		Credit	3 credit	23 (79.3)
			Unidentified	6 (20.7)
		Establishment type	National/public	8 (27.6)
			Private	21 (72.4)
		Locations	Central-north area (Seoul/Incheon/Gyeonggi/Gangwon)	9 (31.0)
			Mid-west area (Daejeon/Chungnam/Chungbuk)	7 (24.1)
			Mid-east area (Gyeongbuk/Daegu)	4 (13.8)
			South-west area (Jeonbuk/Jeonnam/Jeju/Gangju)	5 (17.2)
			South-east area (Gyeongnam/Ulsan/Busan)	4 (13.8)

목 개설 관리에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기준 충족이 우선 고려 사항임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무엇보다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교원의 확보와 적절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교재도 있어야 하고 준비된 교수요원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대학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고 중요하다는 공감대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그룹2-참여자2)

“예전부터 근거기반간호 필요성은 공감했던 것 같은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못 열다가 제가 가면서 필요성을 설득해서 개설하게 되

었어요”(그룹2-참여자3)

2)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 성과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 성과로 긍정적인 성과와 부정적인 성과 2가지 중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긍정적인 성과

긍정적인 성과의 하위범주로는 간호연구의 질 향상, 인식의 긍정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간호연구에서 보다 심도깊은 연구결과에 도움이 되고, 대학원생의 경우 논문주제 결정, 연구의 내실이 깊

Table 4. Experience of Teaching Evidence-based Nursing Class

High-level categories	Middle-level categories	Low-level categories	Meaning units/concepts
Evidence-based nursing course open	Background/ demands	Recent nursing research status	- Reflection of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trends, introducing evidence-based nursing in nursing research - Introducing the current concepts and process to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needs	-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teaching evidence-based nursing course of professors - Expectation of effects on nursing practice and training
	Process and method	Target students	- Course open from graduate school to undergraduate course - Difficulty in opening undergraduate course, including nursing research/research method course - Consideration of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standards - Framing clinical question use in other course for enhancing critical thinking
		Initiate method	- Willingness to course open and performing - Retaining faculty members
Evidence-based nursing course performance	Positive outcome	Quality improvement in nursing research	- Helpful to in-depth nursing research - Decision of thesis topic in graduate students, ensure substantiality of research
		Positive change in perception	- Improvement of problem awareness, critical thinking - Improvement initiative in practice - Enhance self-esteem based on professionalism, Improvement in professionalism - Interest in evidence-based nursing after lecture
	Negative outcome	Low level of lecture feedback	- Difficulty feel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 Low grade of lecture feedback regarding on burden of course - Burden of students especially 4th year grade
Facilitators	Changes in clinical practice	Diffusion on clinical nursing practice	- Including evidence-based nursing to hospital recruiting interview - Reflection of college will occur when diffusion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Retaining teaching faculty	Preparation of teaching faculty	- Needed retaining of faculty members for enhancing competence - Demands on training program for faculty members - Attending evidence-based nursing conference/workshop
	Developing teaching program	Developing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 Developing pedagogues that are easily accessible - Developing appropriate materials for evidence-based nursing course - Teaching knowledge and experience - Interesting teaching of students for positive response - Stepwise approach rather than whole 5 step of evidence-based nursing to undergraduate students(dividing steps and timing)
Barriers	Faculty	Lack of experience	No exposure to education or workshop related evidence-based nursing, no experience of teaching
		Lack of confidence	- Insufficient self-confidence - Large burden of lecture
		Low level of perception	Difficulty in persuade to faculties who does not know the need of evidence-based nursing
		Lack of time	- Heavy burden of lecture content - Lack of time of full-time faculties compared to workload
	Course management	Difficulty in teamwork project	- Students' low preference to team-work project - Difficulty in course management to large number of students
		Difficulty perception on evidence-based nursing	- Perception of difficulty feeling of evidence-based nursing - High level of difficulty in course - Difficulty in finishing during one semester
	Nursing practice	Gaps between practice and knowledge	- Difficulty in implementing to real clinical nursing practice - Routine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feeling of gap with real world - Too busy to compare knowledge and practice, hard to ask in practice setting - Difference in competence of preceptors or senior nurses
	Resource	Limitation in educational resource	Limitation of time and resource use such as computer lab
	External evaluation	Gaps in accreditation standards	- Requirement of critical thinking, on the other hand education of compliance manual - Emphasizing on manual and principal of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Educational strategies for dissemination	Changes on external evaluation	Changes on external evalu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 Changes of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standards leads to education revise and diffusion(e.g, add on evidence-based nursing) - Change of national examination for certification to trends of raising critical thinking - Accept of evidence-based practice project as thesis topic of master degree
	Role of academic association	Strengthening of collaboration with other professional nursing societies	Diffusion by collaboration between Korean Society of Evidence-based Nursing and other professional nursing societies

어진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학생들의 인식 측면에 있어서 문제 의식 및 비판적 사고의식의 향상, 실무에 대한 주도성 향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긍심이 향상되고 전문성이 제고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강의 후 근거기반간호실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겨 보람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근거기반간호를 하다보니까 연구내실이 깊어진 경향이 있어요. 연구를 진짜 내맘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연구의 문헌고찰이 좋아지고 연구설계가 탄탄해지고 연구가 쉬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그룹2-참여자1)

“지역병원에 제신 선생님들은 나오는 별개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대요. 그게 보람되었어요.”(그룹2-참여자3)

(2) 부정적인 성과

부정적인 성과는 교과목 부담으로 인한 낮은 강의평가가 나온다는 공통적인 경험을 제시했다.

“문헌을 찾는다는 건 하는 것도 대학원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데, 학부에서도 가능한데 학부에서 가르쳐보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그룹1-참여자2)

“간호연구인데 안에는 근거기반간호가 들어있어요. 그 과목은 다들 맡기를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현재는 시간강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전공교수님들이 그 과목 즉 연구자체가 부담이 되시는 것 같구요. 아이들의 흥미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교과목이 아닌가 봐요.”(그룹1-참여자6)

“개설했을 때 성적도 안 나오고 인기도 없고 전문대는 합반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기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거나, 개설했을 때 효과가 없을 때 폐강이 되기도 하지요”(그룹1-참여자4)

3.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1) 촉진 요인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촉진요인’이라는 상위범주(주제)에서는 ‘임상현장의 변화’, ‘교수요원 준비’, ‘교수방법의 개발’의 3가지 중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1) 임상현장의 변화

참여자들은 임상현장에 근거기반간호실무가 좀 더 확산이 된다면 대학도 임상학의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과목 개설의

촉진요인으로 기대하였다.

“임상에서는 그래도 좀 근거기반간호실무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무엇을 중시하는가가 대학에 알려지면 개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임상에는 민감하니까요.”(그룹1-참여자2)

(2) 교수요원 준비

교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준비된 역량을 갖춘 교수요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과정 마련, 교수들의 근거기반간호학회 워크숍, 학회 참석이 독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싶어도 전문성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높으셔서 차단하시잖아요. 그럴 때 학회차원에서 교수대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방법론 교육을 교수요원 훈련시키는 걸 학교랑 조인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룹2-참여자4)

(3) 교수방법의 개발

교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의 어렵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근거기반간호교과목 운영에 적절한 교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흥미위주로 교육해야 학생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육시기를 분리해서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대학원에서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음에 개설했어야 할 때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어렵다는 피드백을 어떻게 쉬운 쪽으로 해줘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그룹2-참여자2)

“저희는 흥미위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정보학 가르치면서 저 혼자 조금 맛본 것들을 접목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팀별과제를 안하고 조별 토론을 했어요. 평가할 때 논문을 하나씩 띄워놓으면서 맛보기하는 식으로 해보니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안주면 재미있어 해요.”(그룹1-참여자2)

2) 장애요인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장애요인’에서는 ‘교수자 측면’, ‘교과목 운영상 측면’, ‘실습/임상환경’, ‘자원이용’, ‘외부평가’의 5가지 중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1) 교수자 측면

교수자 측면의 운영상 장애요인의 하위범주로는 '교수자의 경험 부족', '자신감 부족', '교수들의 인식부족', '시간 부족' 4가지가 도출되었다. 우선 준비된 교원의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개인적 관심으로 워크샵에 참여해서 근거기반이 어떤 건지 정도는 알고 있고,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어서 정리는 되어 있는데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그룹1-참여자5)

“저는 근거기반간호 교육이나 학회에 노출된 적이 없어요.”(그룹1-참여자3)

참여자들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수들도 많은 반면, 아직도 근거기반간호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필요성을 모르는 교수들도 많이 있다고 하였다.

“일단 저희 학교가 고령화사회라서 제 위로는 대부분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시고, 근거기반간호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고...”(그룹1-참여자5)

또한,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의 강의량이 많아 교수자에게 부담이 되고, 전임교수들의 경우 특히 업무량이 많아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학생들 가르치는 외의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 주가 학교업무 부가수업.. 주객이 뒤바뀐 경우예요.”(그룹1-P3)

“제 생각에 근거기반 간호라는 덩어리가 너무 커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어요.”(그룹1-P2)

(2) 교과목 운영상 측면

교과목 운영상 측면에서는 '조별과제 실행의 어려움'과 '교과목이 어렵다는 인식' 2가지가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교과목 특성상 조별활동을 통한 과제수행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학생들의 선호도도 낮고, 교수자에게도 부담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요새 애들은 팀별, 조별과제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프리라이더(free-rider)도 많고, 그런데 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과목이거든요.”(그룹1-참여자5)

“저희는 300명이라 4반으로 하니 한반 인원이 너무 많아요. 팀을 짜면 12개가 넘어가는데, 한팀에 6명 이상 넘어가면 그룹 work이 안 되고 과제 봐주고 하는 것이 힘들거든요.”(그룹2-참여자1)

“다른 과목에 비해 근거기반간호 2학점은 훨씬 힘들어요. 그룹 work 해야 하고 늘 피드백 해야 하고, 똑같은 노동에 대해 보상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 그러면서 교수에게 연구성과로 가기에는 좀 더

멀게 느껴지는 과목 같아요”(그룹2-참여자2)

그리고 학생들의 교과목이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과 교과목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점, 한학기 내에 소화하기 힘든 분량이 언급되었다.

“근거기반간호의 5단계를 한 학기에 다할 수가 없더라고요. 겨우 해 볼 수 있는게 비평적 평가까지는 한학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에 적용이라든가 평가라든가 하는 정도까지는 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완성을 못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그룹2-참여자2)

“처음 듣는 거라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4학년 학생들이 종합시험이라든지 부담이 많아서 새로운 것에 대한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 반면, 너무 어려워서 이런 걸 왜하느냐고 하기도 하고.”(그룹2-참여자1)

(3) 실습/임상환경

한편, 임상현장 또는 실습환경에서 도출된 하위범주는 '임상현실과의 괴리'로 근거기반간호의 실무적용이 어렵고 임상은 여전히 routine하게 일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다는 경험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식과 임상을 비교할 겨를도 없이 바빠, 실습지에서는 물어보기도 힘든 환경임을 언급했다.

“학생들이 임상에 가면, 제가 느끼기에는 비판적 사고를 해서 지금의 지식과 임상을 비교할 겨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 하는 대로 해야 눈에 띄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지만 임상에서는 쉽지가 않아요.”(그룹1-참여자2)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질문도 많이 하고 위의 선배가 많이 받아줘야 하는데, 계속 학생들이 질문도 하지만 계속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한다.”(그룹1-참여자4)

“저는 프로젝트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고 재밌게 잘 했는데, 제가 근거기반간호수업을 듣고 실제 임상에서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그룹1-참여자5)

“임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하고 선배한테 물어보면 ‘니가 대학원에서 배웠으니까 그러지 임상에서는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딴?’ 그런대요”(그룹1-참여자1)

(4) 자원이용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에서 문헌검색과 같은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컴퓨터실과 같은 자원이용의 제한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언급되었다.

“전문대 경우 간호학과가 정보실에 앉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안되어 있어요. 의학정보학과 꺼라 양해를 구하여 쓸 수는 있는데 저희는 10만이거든요. 어떻게 한꺼번에 다 갈수 있겠어요.”(그룹1-참여자1)

(5) 외부평가

참여자들은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내용에서는 임상에서 문제의 식과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며 과학적 지식과 임상을 비교하는 시각을 기를 수 있게 가르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국가고시나 간호대학 인증평가와 같은 외부평가에 대한 대응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도 간호교육은 국가고시나 한국 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인증평가에 대응하기 쉬운 매뉴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간호대학 인증평가원에서는 매뉴얼과 원칙을 강조하므로 근거기반간호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교에서는 근거기반간호를 교육하면서도 애들한테는 딱 매뉴얼을 가르치거든요. 매뉴얼대로만 하라고 가르치지, 뭐 때문에 하는지는 얘기 안하고, 수기교육은 기계적으로 매뉴얼로 하면서... 근거기반간호는 핵심질문을 만들어라 하니까 현실은 좀 안 맞아요”(그룹1-참여자1)

4.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활성화 방안

국내 간호대학의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는 ‘외부평가/기준’, ‘전문학회의 역할’ 2개의 중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1) 외부평가/기준

참여자들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에 근거기반간호교육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 문제 경향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방식으로 변화한다면 교과목 개설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간호대학 인증평가에서 비판적사고와 관련된 요소를 연구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근거기반간호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항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그룹2-P3)

“저희가 국가고시 나온다,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강의하는데, 이걸 국가고시 안나와, 하지마’가 되어버리거든요.”(그룹1-참여자1)

“제가 임상전문간호사 시험준비하면서 의사들 국가고시 문제집을 많이 봤는데 의사들 문제가 저희랑 다른 거예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고 비판적인 사고가 반영된 문제를 제출하고 있어요.”(그룹

1-참여자6)

“석사학위는문으로 몇 년 전 제가 듣기로 근거기반간호실무 프로젝트를 받아주는 대학이 없다고 들었어요. 박사는 더 당연하고요. 실제 이것이 연구프로젝트로 인정되어서 결국에 연구실적인데 석사 학위논문에 많이 활용되도록 인정받고 그런다면 굉장히 빨리 확산될 것 같아요.”(그룹2-참여자1)

2) 전문학회의 역할

또한 참여자들은 근거기반간호학회가 다른 전문학회와 협업을 통해서 근거기반간호 방법론을 확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실제 확산은 여러 분야 전문학회에서 받아들여서 그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바꾸는데 써먹어야 확산이 되고, 성인이든 기본이든 경장영양에서 바뀌줘야 바뀌지 교과서가 안 바뀌잖아요.”(그룹2-참여자2)

“근거기반 여성간호학회 같은 식으로 1년에 한번 씩이라도 같이 학회를 한번 공동으로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그룹1-참여자6)

논 의

국내에서 근거기반간호실무는 종합병원 중심의 근거기반간호실무 프로젝트의 운영과 교육수행을 기반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1,2)} 아직 국내 간호대학 교과과정 상에서 근거기반간호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대학에서 운영 중인 공식홈페이지 상에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과목의 개설여부와 운영현황을 우선 파악하였다. 전체 204개 간호대학 중에서 학부에서 단독으로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별도개설하여 운영 중인 대학은 전체 10%도 되지 않았고, 전공필수는 단 한 학교만 운영 중이었다. 다만, 초점집단면담 결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간호연구나 조사연구방법론 과목의 일부에 내용이 포함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보다 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추정할 수는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간호연구 교과목의 개설은 전체 81.9%이며 전공필수인 경우가 71.9%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 중에 ‘간호연구를 기획하고 직접 수행한다’는 항목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반면, 대학원은 학부에 비해 좀 더 개설된 학교비율이 높는데, 이는 근거기반간호실무가 종합병원 중심으로 확산되어 있고, 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방법론의 하나로서 좀 더 개설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의 필요성 측면에서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근거기반간호 교육은 간호학생들의 비판적사고의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고,^{3,5)} 이는 본 연구에서도 초점집단면담의 결과 다수 참여자들이 동의한 결과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에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의 적용이 중요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성과로 언급되고 있어, 많은 대학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⁷⁾ 국외의 경우, 근거기반간호의 핵심질문 생성에 비판적 사고능력이 반영된다고 보고 있으며,³⁾ 특히 문헌을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비판적 사고능력의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⁴⁾ 국내 일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실습 시 임상수행 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¹¹⁾ 비판적 사고 성향은 임상에서의 근거기반간호실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 비판적 사고의 증진은 결과적으로 근거기반 간호실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⁵⁾

또한 비판적 사고의 향상 외에도 학부생들에서의 근거기반간호 교육성과는 간호연구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인지도 향상이었으며,⁶⁾ 간호대학원생들의 석사과정 연구 프로그램에서도 멘토(mentor)가 학생의 연구 요구에 맞게 근거기반간호실무를 연계했을 때 직접적인 환자간호와 전문간호사로서의 역량강화에 성공적이었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근거기반간호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¹²⁾

국내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중, 임상현장에서의 근거기반간호실무의 확산은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너무 바쁜 임상현장의 상황은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장애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임상현장에서의 근거기반 간호실무의 확산과 간호교육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관련 연구가 있다. 2007년 캐나다 간호대학에서 시행된 파일럿 프로젝트에서는 간호대학 4학년생과 프리셉터를 짝지어 전자문헌 검색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근거기반간호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임상실습을 시행한 후 그 경험에 대한 질적내용분석을 시행한 결과, 워크숍 교육내용이 임상실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지식의 향상, 교육자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 자신감과 자율성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¹³⁾

간호학생들이 근거기반간호 교육을 받고 임상현장에 나갔을 때 근거기반간호실무가 강화, 확산되는 핵심역할을 하게 된다.⁵⁾ 근거기반간호실무가 임상에서 좀 더 확산 된다면,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학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과목 개설과 충분한 학습량 제공에 좀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초점집단면담 참여자들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교육과 임상현장은 서로 순환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교수자의 역량 역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모두에서 중요한 중위 범주로 확인되었다. 현재 근거기반간호 교과목을 개설 중인 대학교의 교수들은 여러 차례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의 교육과 워크숍에 참여하여 교수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응답했고, 이는 본 연구에서 장애요인으로 언급되었던 역량 있는 교수요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근거기반간호 교육의 촉진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교과목 운영 측면의 장애요인인 학생들의 조별과제 부담, 수업내용의 난이도가 높고 어렵다는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쉬운 교재의 개발과 교수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도 근거기반 간호 교육이 소개될 당시만 해도 새롭게 소개된 개념이었고,¹²⁾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전자검색해야 하는 부담감, 비평적 평가와 실무의 적용까지 쉽지 않은 절차가 있어, 학부과정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임상실습과 연계한 학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4,5,14)} 이에 교수자들이 학부생들의 수준에 맞는 핵심적인 교육요소를 선택적으로 교육하여 교육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에 맞는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 근거기반간호 교육전략에 대한 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컨퍼런스, 강의, 저널클럽, e-learning 등 다양한 교육중재가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었다.¹⁵⁾ 또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전략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는데, 문헌검색 및 비평적 평가를 통해 보고서를 쓰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부여하고 학부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상적용 부분은 문헌을 근거로 발표하게 하되 점수는 부여하지 않고 다른 보상체계(예, 시상)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문헌도 있다.¹⁶⁾

마지막으로, 국내 근거기반간호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수 참여자들이 외부 평가 기준의 반영 및 전문학회의 활동을 주요 요소로 보았다. 외부평가기준의 반영을 위해서는 좀 더 간호교육의 성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것 같이 간호대학 학생들이 근거기반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비판적 사고능력의 함양,^{4,11)} 간호연구 및 근거기반간호실무에 대한 인지도 및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는 등⁶⁾의 교육성과가 국내에서도 있을지 더 연구되어야 한다. 국내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거기반간호 교육성과가 좀더 교육현장에서 확인되고 학술적으로 발표된다면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문학회의 역할 강화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간호교육과 근거기반간호실무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입증된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5,6,12)}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보인다.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가 다른 전문학회와 협업하여 학술활동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협업 체계 마련을 전략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거기반 간호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교육하는 근거기반간호 교과목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현장에서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강의부담이나 기타 장애요인으로 아직 교육기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거기반간호 교육의 필요성 인식, 교수요원의 역량 강화, 비판적 사고능력을 중시하는 임상현장 및 교육현장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대학홈페이지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수집방법을 취한 점이다. 초점집단면담 결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근거기반간호를 특히 학부의 경우 단독으로 개설하기 어려워 간호연구나 조사연구방법론의 일부로 개설할 수도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학사운영이나 상세 교과과목 개설 정보를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홈페이지에서는 대학 특성과 관련된 상세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추후 좀더 정밀한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교과목 운영현황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통한 이차자료수집과 분석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Gu MO, Cho YA, Eun Y, Jeong IS, Lee SH, Seo HJ. Introduction to evidence-based nursing: Fornurse Publication; 2016.
2. Kwon JS, Jeong JS, Kim KS, Kim SK, Kim SM, Kim EH, et al.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nursing at department of nursing among acute care hospitals in Korea. *Evidence and Nursing*. 2016;4(1):4-11.
3. Dawley K, Bloch JR, Suplee PD, McKeever A, Scherzer G. Using a pedagogical approach to integrate evidence based teaching in an undergraduate women's health course. *Worldviews Evid Based Nurs*. 2011;8(2):116-23.
4. Balakas K, Sparks L. Teaching research and evidence-based practice using a service-learning approach. *J Nurs Educ*. 2010;49(12):691-5.
5. Moch SD, Cronje RJ, Branson J. Part I. Undergraduate nursing evidence-based practice education: envisioning the role of students. *J Prof Nurs*. 2010;26(1):5-13.
6. Keib CN, Cailor SM, Kiersma ME, Chen AMH. Changes i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research and evidence-based practice after completing a research course. *Nurse Educ Today*. 2017;54:37-43.
7.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for nursing colleges. 2017.
8. Choi MH, Kim YH, Son HM. Factors influencing Evidence-based practice attitudes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6;22(3):274-82.
9. Elo S, Kyngäs H.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 Adv Nurs*. 2008;62(1):107-15.
10. Guba EG, Lincoln YS.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San Francisco; 1981.
11. Lee AK, You HS, Park IH.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 *J Korean Acad Nurs Adm*. 2015;21(2):154-163.
12. Cohn T. Strengthening Nursing engagement in research and evidence-based practice with a successful MSN student research practicum. *Fla Nurse*. 2015;63(3):15.
13. Mohide EA, Matthew-Maich N. Engaging nursing preceptor-student dyads in an evidence-based approach to professional practice. *Evid Based Nurs*. 2007;10(2):36-40.
14. Bostwick L, Linden L. Evaluation criteria for nursing student application of evidence-based practice: a delphi study. *J Nurs Educ*. 2016;55(6):336-41.
15. Kyriakoulis K, Patelarou A, Laliotis A, Wan AC, Matalliotakis M, Tsiou C, et al. Educational strategies for teaching evidence-based practice to undergraduate health students: systematic review. *J Educ Eval Health Prof*. 2016;13:34.
16. Sin MK, Bliquez R. Teaching evidence based practice to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 Prof Nurs*. 2017;33(6):447-51.